

보도시점 2026. 9. 21.(월) 12:00 배포 2026. 9. 21.(월) 10:00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방문

- 박영선 자문단 위원장 및 반도체 분과위원들 딥엑스 방문, 현장에서 분과 위원회 개최하고 정책과제 토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위원장: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21일(월) AI반도체 기업 딥엑스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반도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분과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9.21.(월) 12:00~13:20 / 딥엑스(경기 판교 소재)
- 참석자: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김성수 연세대 공과대학 특임교수(부위원장),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반도체 분과위원장),
차정훈 前 (주)카이스트홀딩스 대표이사(총괄간사/반도체 분과위원),
김녹원 딥엑스 대표(온라인 회의 참석), 조재홍 딥엑스 상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용기 STEPI 부연구위원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은 올해 4월 출범 이후 예산사업 발굴, 각종 포럼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8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 양자, AI에이전트커머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번 현장방문은 경기 판교에 소재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 딥엑스에서 진행하였으며, 딥엑스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CES 2024·2026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차, 바이두(Baidu)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중이다.

*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

참석자들은 디엑스에 마련된 전시관을 둘러본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분과위원들은 국산반도체 활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재정경제부는 전략경제자문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지속 모색하고 정책수립에 참고·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4-215-4930)
		담당자	사무관	송현지 (song15th@korea.kr)

